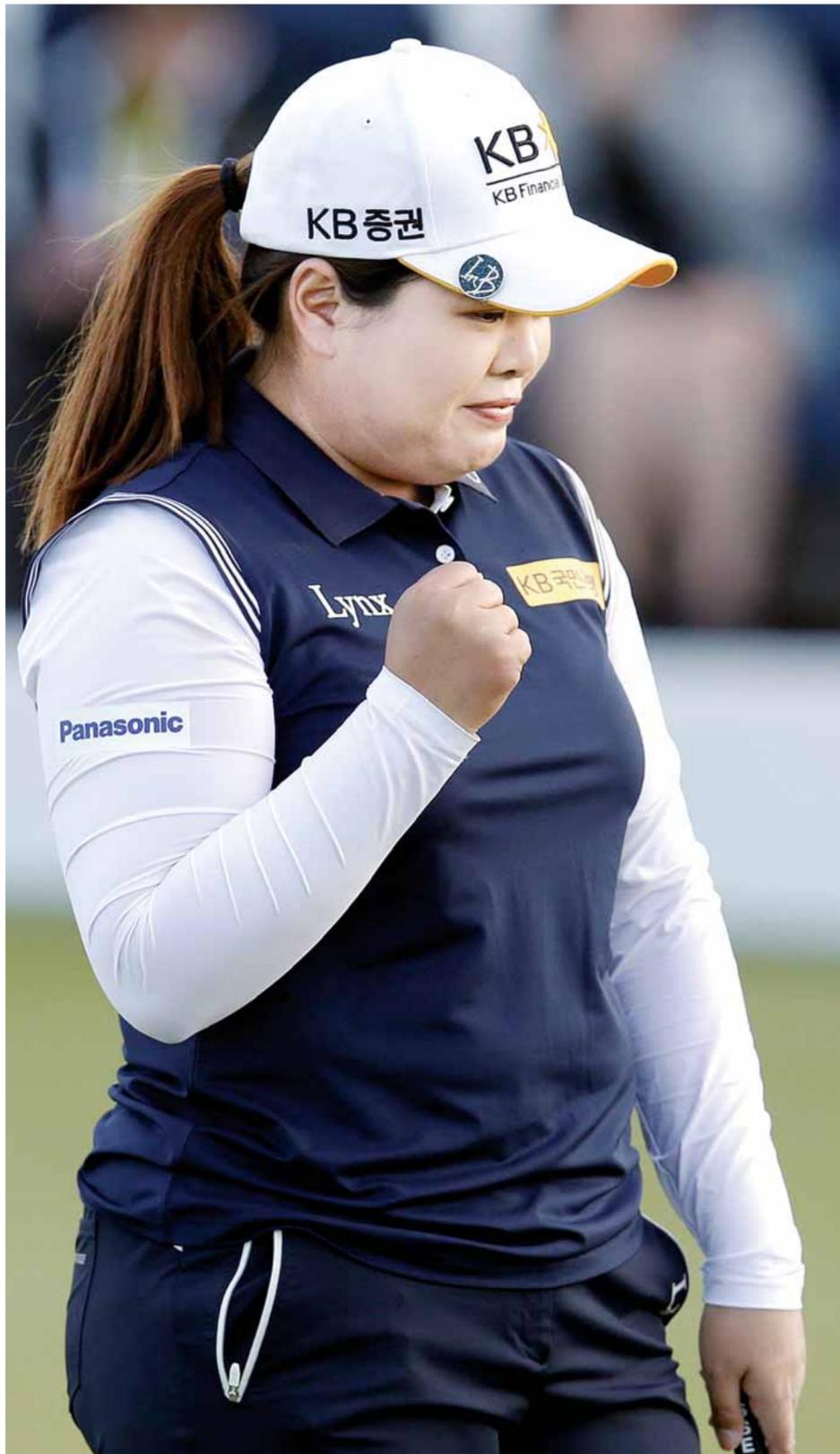


4연속 버디 행진... '골프여제' 1년만에 돌아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마지막 날 18번홀에서 승리를 확정 한 '골프여제' 박인비(30)가 주먹을 쥐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LPGA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제패

“이달 말 메이저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할 것”

‘골프 여제’ 박인비가 1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는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이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6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 이후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한 박인비는 투어 통산 19승을 기록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2만 5000달러(약 2억4000만원)다.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브리티시 오픈을 끝으로 허리 부상 때문에 LPGA 투어 대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월드 챔피언십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한 박인비는 올해 두 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신고했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선두였던 박인비는 1번 홀(파4) 버디로 최종 라운드를 상대에게 시작했지만 이후 11번 홀까지 10개 홀 연속 파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그녀는 사이 베테랑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가 3타를 줄이며 1타 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때부터 박인비의 신들린 듯한 ‘버디 행진’이 시작됐다. 12번 홀(파4) 그린 밖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들어가며 데이비스를 2타 차로 밀어냈다. 박인비는 13번 홀(파4)에서 약 3m 정도 만만치 않은 거리에서 한 타를 또 즐겼고, 14번 홀(파3)에서도 버디를 잡았다. 15번 홀(파5)에서는 절묘한 벙커샷으로 공을 홀 1.5m에 붙이면서 4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박인비가 3개 홀을 남기고 4타 차 선두가 되면서 사실상 우승의 향방은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게 됐다.

데이비스와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알렉스 등 세 명이 박인비에 5타 뒤진 공동 2위, 전인지는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신인으로 앞서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10위 이내 성적을 낸 고진영은 이날 1타를 잃고 5언더파 283타, 공동 46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편 박인비는 “오늘 결과가 다시 우승할 수 있고, 통증 없이 경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우승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우선 이번 시즌에는 우승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이룬 만큼 메이저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고 싶다. 첫 메이저 대회인 이달 말 ANA 인스퍼레이션이 기대된다”고 의욕을 내보이기도 했다.

1988년 7월생으로 만 30세를 약 3개월 앞둔 박인비는 “20대를 보내고 30대 새로운 시작점에서 우승이 좋은 신호탄이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30대에도 골프 인생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최근 LPGA 한국(계) 우승자	
*우승년월 한국(계) 시즌 기록	
2017년	
장하나	호주여자오픈 (2.19)
양희영	혼다 LPGA 타이틀랜드 (2.26)
박인비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5)
이미림	KIA 클래식 (3.27)
노무라 하루	텍사스 스타아웃 (5.1)
김세영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5.8)
유소연 (2승)	ANA 인스퍼레이션 (4.3) 월마트 챔피언십 (6.26)
대니얼 강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7.3)
이미향	레이디스 스퀘어티오픈 (7.31)
김인경 (3승)	슬라이트클래식 (6.5) 마라톤 클래식 (7.34) 브리타시 오픈 (8.7)
박성현 (2승)	US 여자오픈 (7.17)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8.26)
이미향	레이디스 스퀘어티오픈 (7.31)
고진영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0.15)
지은희	스윙업 스퀘어티오픈 챔피언십 (10.22)
2018년	
고진영	호주여자오픈 (2.18)
미셀 위	HSBC 월드 챔피언십 (3.4)
박인비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3.19)

결그룹 공연·V11 퍼포먼스...KIA 24일 화려한 개막식



24일 유노윤호·25일 김아랑 시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24·25일 kt 위즈를 상대로 한 오프닝 시리즈를 맞아 ‘동행-타이거즈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KIA는 개막을 기념해 2017년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세리머니와 함께 국내 정상급 결그룹의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 KIA는 24일 개막전 입장 관중에게 응원 클레퍼 2만개와 엠블럼 깃발을 나눠주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개막전 식전 행사는 2017시즌 통합우승

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로 채워진다. 광주-챔피언스 필드 외야 그라운드에서 11개의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 통천이 펼쳐지고, 2017 한국시리즈 우승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돼 그 날의 환희를 되새긴다. 이어 행사는 1루 측 피전광판 상단에 설치한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 제막식과 함께 절정에 이르게 된다. 결그룹 ‘에이핑크’는 ‘파이브(Five)’ 등 히트곡을 부르며 개막전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개막전 공식 행사는 오후 1시 35분부터 시작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올 시즌 그

라운드를 호령할 ‘호랑이’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어 양팀 감독에게 꽃다발이 전달된다. 개막전 시구는 광주 출신의 가수 유노윤호가 담당하며, 애국가와 광주광역시 북구 합창단이 맡는다. 25일 경기 시구는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아랑이 한다. 전주 출신의 김아랑은 지난날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애국가는 크로스오버 4중창 그룹 ‘포레스텔라’가 한다. 배두훈-강형호-조민규-고우림으로 구성된 ‘포레스텔라’는 지난해 TV 음악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이다. /김여울기자 wool@

최민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4관왕 ‘종합우승’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왕좌를 탈환했다.

최민정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여자 3,000m 슈퍼파이널과 여자계주에서 우승해 4관왕에 올랐다.

총점 110점을 기록한 최민정은 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했다. 그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따라 내년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선발됐다.

전날 500m와 1,500m에서 우승했던 최민정은 이날 1,000m 결승에서 어렵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4명이 달린 결승무대에서 최하위로 처졌다. 팀 동료 심석희(한국체대)가 이 종목에서 우승했고, 김아랑은 파이널 B에서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민정은 이어 열린 3,000m 슈



퍼파이널에서 폭발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분 58초 939의 기록으로 중국 리진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최민정은 개인전 4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개인 순위에 합산되지 않는 여자계주에서 심석희, 김아랑, 김예진(한국체대)과 함께 출전해 4분 7초 569의 성적으로 네덜란드를 제치고 우승해 네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정현 세계랭킹 23위 ‘뎀 최고’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이 세계 랭킹 23위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정현은 19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에서 2주 전 26위보다 3계단 오른 23위를 차지했다.

이날 끝난 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에서 8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랭킹 포인트 1727점을 기록했다.

2주 전 순위에서 25위로 정현보다 한 계단 위였던 니시코리 게이(일본)는 33위로 밀려났다. 이로써 정현은 이번 주 순위에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됐다.

2000년대 이후 남자테니스 ‘아시아 톱랭커’의 자리는 이형택, 파라돈 시차판(태국), 루엔쑤(대만), 니시코리 등으로 이어졌다.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여전히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10대부터 50대까지 야구 열정 뽐냈다

야구기록강습회 성료

제 7회 야구기록강습회(이하 강습회)가 지난 17·18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GBSA·회장 나훈)와 한국야구기록연구회(KBR·회장 김재요)가 주최한 이번 강습회에는 40여 명이 참가해 야구 열정을 과시했다.

《사진》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13살 막내에서부터 50대의 원조 타이거즈팬까지 이들은 나이를 잊고 똑같은 학생이 됐다. 지역도 ‘열광’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주·목포·여수·순천·정읍·전주는 물론 대전을 지나 서울·원주에서 달려온 이도 있었다.

원주에서 주인공은 올해 고 3인 안세연 양. 스포츠 관련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그는 엄마가 운전한 차를 타고 먼 길을 와 꿈을 키웠다.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은 ‘고 3 수험생’ 박윤영 양도 꿈을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야구부 아들(무등중 류승민)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야구를 배우러 온 아버지(류용선)도 있었다.



주말도 반납하고, 원정길도 마다하지 않은 이들은 야구 역사, 규약 및 용어, 야구 기록법 등을 배웠다. KIA의 시범 경기 중계를 보면서 직접 기록지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 시즌 화순중의 스코어북을 담당하게 된 안정현(13·1년)군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훈련이 더 쉬울 거 같다”면서도 “야구 말고 다른 것도 배우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야구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소감을 밝혔다.

서울위너스여자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김혜문(31), 최미혜(47)씨에게도 즐거운 나들이였다.

김씨는 “미국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했다. 2009년

에 한국에 돌아와서 KIA가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팬이 됐고,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며 “기록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세세하고, 열정적으로 알려주셨다. 우리팀 공격 위주로만 봤는데 더 넓게 야구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실 야구를 싫어했다(웃음). 생활체육지도자로 티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야구를 시작했다”며 “처음 광주에 왔다. 어렵기는 하지만 즐겁게 수업을 듣고 간다. 야구 역사를 배우면서 KIA의 매력에도 빠지게 됐다”고 웃었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광주일보, CMB,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교 후원으로 진행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